

#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강경지역아동센터



2017. 7

작년에 이화봉사단에 참여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계기로 이번에도 좋은 기회를 통해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에 봉사를 오게 될 수 있었다. 봉사를 다 마친 지금, 그 순간, 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행복했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다. 아이들 얼굴과 이름 하나하나가 생각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보았던 아이들의 슬픈 얼굴이 마음에 남는다. 그 순간에는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이별이지만 아이들은 매번 방학마다 느껴야 하는 이별이라는 점이 더 아팠던 것 같다. 센터에 있는 내내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부모님이 바쁘신 아이들, 외국인 부모님을 두어서 언어가 살짝 부족한 아이들,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 등 다양한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이화봉사단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들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행했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사히 진행 할 수 있었다. 다 좋고 유쾌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분들이셔서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봉사하는 시간 전부가 즐거웠다.

4박 5일이라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화봉사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아동센터를 떠나 기차로 집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활동을 다 완료했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하고 함께해온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쉬워 울컥하기도 했다. 첫 날 센터에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순조롭지 못했다. 처음 보는 언니 혹은 누나가 다가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경계했던 아이들과 과연 4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해온 프로그램 활동들을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었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품 안에 꼭 안기며 장난을 치며 우리를 잘 따라주었다. 봉사라는 활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알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화봉사단으로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또한 직접 팀원들끼리 프로그램 준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직접 스스로 도맡아 하며 활동을 무사히 잘 끝냈다는 것이 신기했고 알찬 방학을 보낸 기분마저 들어 보람있는 5일을 보낸거 같다.

---

강\*지

---

제가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은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실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혹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좋은 어른으로 그 아이들을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경땅을 밟았을 때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이화봉사단을 시작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지만 막상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나니 우리를 너무 반겨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 회의를 할 때 남은 기간동안 잘 마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강신청까지 겹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서로 협력하며 각자 맡은 프로그램을 무리없이 진행하고 나니까 이 곳이 원래 지내던 것처럼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맡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쿠키만들기였는데 이런저런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센터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심지어 쿠키를 굽는게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우리 이화봉사단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도 가끔씩 존재했지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떠날 때 편지와 자그마한 종이접기선물들을 주며 서럽게 울며 인사할 때 아쉬움과 슬픔이 물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떠나게 되어 다음에 또 오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강경에서의 추억은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처음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을 때 초등학생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과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지, 잘 지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첫째 날에는 솔직히 아이들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 낯설어 하는 느낌도 들어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놀이를 하면서 틈틈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편해지고 굳이 공통된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다. 길 것만 같던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갔고, 아이들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더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 등의 아쉬움이 짙게 남았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봉사단이 올 때마다 아이들은 좋기도 하겠지만, 매번 같은 이별을 겪어야 되고, 그 때 마다 아쉬움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다음에 또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된다면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을 보러 한 번 더 가고 싶다.

---

반\*민

---

이번 여름 강경에 내려가 봉사를 하면서 나는 한 층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상처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센터의 주의와는 달리 그곳 센터 아이들은 누구보다 순하고 순수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들이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도하기 전에는 손가락을 들지 않고 자신이 조금 해를 보더라도 서로서로 배려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게 되었다. 또한 같이 봉사를 갔던 팀원언니들 모두 막내인 나에게 거리낌없이 다가와 주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같은 경험과 같은 고생을 함으로써 더욱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 비록 4박5일이었지만 나는 이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